◀기쁜 우리 날들▶ **삶에 가장 소중한 때**

오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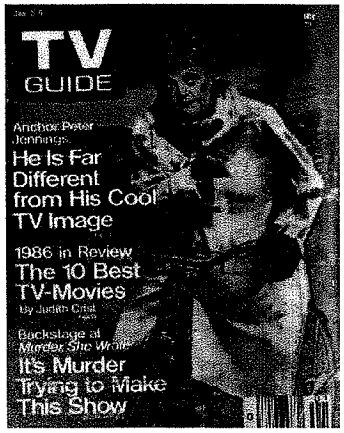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힘들 때가 있으면 편안할 때도 있고
울고 싶은 날이 있으면 웃을 날도 있고
궁핍할 때가 있으면 넉넉할 때도 있어 그렇게 삽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식을 키우느라 많이 힘이 들었어도
자식들이 다 커서 각자 제 몫을 하는 지금에는
힘들었던 그때가 왠지 좋은 때 같고

한창 일할 때에는 몇 달 푹 쉬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부르는 이 없고 찾는 이 없는 날이 오면
그때가 제일 좋은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답니다.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힘들 때와 궁핍할 때가 어려운 시절 같지만
그래도 참고 삶을 더 사노라면
그때의 힘듦과 눈물이 오늘의 편안함이고
그때의 열심과 아낌이 오늘의 넉넉함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다 버리고 살 수 없고
편안하고 넉넉하다고 다 혼자 가질 수 없는 것은
우리네 사는 것이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
서로 소중한 시절을 가꾸며 함께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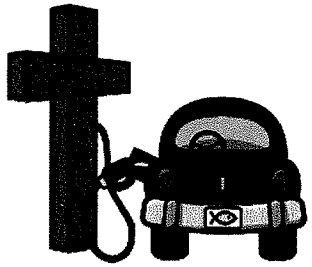
◀그리운 날의 흑백TV ▶ **제시카의 추리극장**

셜록 홈즈와 괴도 루팡을 읽고 자라난 내게 할머니 같은 넉넉한 여유로움의 여성이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은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추리소설 작가인 제시카는 그가 살고있는 마을과 여행지에서 이상하게도 항상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추리소설 작가인 그는 그의 놀라운 추리력으로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눈이 커 겁이 많을 것 같이 생긴 제시카는 예리하지만 할머님의 자애로움으로 사건을 추리해 나갔습니다.

"무례하다고 사람을 죽여선 안돼, 그렇다면 지구 인구는 반으로 줄 걸세" 그의 대사처럼 제시카는 휴매니즘을 느끼게한 추리극이었습니다.

교 회 목 표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 내는 기도생활(마태 7:8)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8권 1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6년 3월 19일
☎ 369- 5077.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인과 종**



어떤 사람이 골동품 가게에서 병 하나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값을 물었습니다.
"그 병은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이 사람아 이거 너무 비싸지 않은가? 자네는 물건 볼 줄 모르는군. 주인과 직접 흥정을 하겠네. 주인을 불러주게!"
"제가 주인입니다."
"뭐라고? 주인이 물건값도 제대로 못매겨? 장난치지 말고 당장 진짜 주인을 불러주게. 시간이 없네. 나도 바쁜 사람이야"
서로 옥신각신 하다가 화가 난 주인은 손님이 들고 있던 술병을 빼앗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쳐 깨버렸습니다.
"이래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까?"

깨버릴수도 있다는 것! 그가 주인이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인노릇 하며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주인 노릇 한번 못하고 종노릇만 하다가 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주인이 되게도 하고 종이 되게도 합니까?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깨버리고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주인은 깰 수 있지만 종은 못 깹니다

믿음을 위해서라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노릇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영혼도 육신처럼
없어질 것이라고 누가 말한다면
꽃은 죽어도
씨앗은 남는다고 대답하라

◀인품따라 행하기▶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나를 참고 견뎌주니
얼마나 좋은 사람이냐?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 이
참회와 소원을 위한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9장	다 같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d	11 (시 28편)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찬 송 Hymn	364장	다 같 이
기 도 Pray		이광희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고린도후서 3:1-3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주님의 얼굴 보라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우리는?(2) 『그리스도의 편지』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58장	다 같 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3월 예배위원◈

일자	기 도	헌금위원	안 내
26	지찬영	정성호	<본당> 김순자
5	노은숙	정이지	노은숙
12	박일영	조은희	
19	이광희	조재근	<현관> 박일영
26	이규임	차현주	최재학

◈3월의 교회력 ◈

	주 일	예배와 모임
5	성찬주일 사순절시작(1)	월초새벽기도회(1) 남선교회(3)구역예배(10)
12		믿음의어머니기도회(14)
19		
26	이삭줍기주일	수요수도원(29)

2006년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위해 5분 매일 교회위해 1분 매일 남을위해 1분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이사,이민으로 교회를 찾으신다면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바른 판단이 섭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 낮 12시 / 수요예배: 7:30 pm / 새벽기도회:금 5:55 / 청년부:토 오후 2시	

1.교우소식

<기도해주세요> 김소연 권사(백제성,장유진 집사). 수술(대장암). 21일(화)

*제1여선교회. 예배 후 유아실에서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교우께서는 화요일(21일) 아침에 짧은 시간동안이라도 계신 곳에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원어민교사> 이명주(이광희 장로.이규임 권사 장녀).가르치는 행복함을 누리면서 주님안에서 평안하세요.

2.선교회,구역예배

*친교를 나눌 수 있는 Hall 공사관계로 교우의 만남을 선교회와 구역예배를 통해 가져 주십시오. 희생적인 한 두 분의 섬김으로 부서 회원들의 신앙생활이 무척 활기를 얻게 됩니다.

3.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

*주일에서 주일 사이가 넓습니다. 수요성경강해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어 매일을 말씀으로 살도록 인도합니다.

4.다음주일은 "이삭줍기주일" (예고)

*한 달동안 모은 Silver Coin을 고국과 태국,필리핀 어린이에게 사랑의 헌금으로 보냅니다. 자녀들에게 이웃을 돕는 신앙교육이 되도록 잘 활용하십시오

◀착한 시인▶내 아내는 우동을 좋아해

배경희

내 아내를 처음 봤을 땐 몸매 예쁘고
후리지아향기 짙은 여자 였었네
큰아들 여드름 늘듯 체중이 불고
이제 땀내 절은 속옷처럼 쉰내만 나네
아내 곁에 누으면 눈물이 나네
오늘 꿈엔 무얼 깎는지 잠꼬대 그치질 않네
내일은 아내에게 십만 원쯤 손에 쥐어주며
예쁜 구두 사신으라고 얘기해야지
내 아내는 늘 바보같이 우동만 먹고
샤넬 같은 향수는 냄새가 싫데
오늘은 아내와 함께 시장 갔는데
아내는 옷집 앞에서 발길 무겁네
내가 한 벌 사렸더니 화들짝 놀라
얘들 학원비도 못 냈는데 정신이 있는 거냐네
내일은 아내에게 십만 원쯤 손에 쥐어주며
이쁜 새 옷 사 입으라고 얘기해야지

참 모두들 알뜰살뜰이도 살아갑니다. 몸이 불어나지만 않았다면 10년 전 가져온 옷을 말끔하게 차려 입을 줄 알고 그것을 부자의 비싼 옷보다 더 행복으로 여길 줄 아는 마음들입니다.

고국 방문 때 후질근 해 보이는 모습에 친구들이 연민의 눈길을 보여도 여유롭게 웃을 줄 아는 마음은 도의 경지에 이른 자만이 누리는 여유로움입니다.

아이들 입에 쌀밥 배불리 들어가는 것 보는 것을 제일 행복해 했다는 부모님 시대의 마음들이 어느새 우리들의 마음에도 자리 잡았습니다.